

# 자동차·조선업…광주·전남 주력산업 일자리 증가율 ‘0%대’

올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  
반도체는 증가 섬유는 감소할 듯  
철강·석유화학 일자리는 마이너스

광주의 자동차, 전남 조선업·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고용이 올 상반기 ‘0%대’ 증가에 그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업종 일자리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8개 업종은 ‘0%대’ 증감률을 보이며 ‘유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연구는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분류했다.

광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0.5%(2000명) 늘고, 전남 대표 제조업종으로 꼽히는 조선업은 0.8%(1000명)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전남의 또 다른 주요 업종인 철강 일자리는 0.6%(1000명) 줄고, 석유·화학은 0.2%

(1000명) 감소한다.

조선업은 고용(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11만 7000명)의 13.8%(1만6100명)가 영암에 물려왔다. 지난해 하반기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3300명으로, 전남은 여기서 17.5%(580명)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조선업 고용이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2년~2023년 다양 수주한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선가 선박의 인도가 본격화하고 생산 공정 안정화가 진행되며 전반적인 수출 흐름이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업 일자리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2023년 하반기 9.7%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0.6% 등으로 내려오다가 올해 상반기 0.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광양과 여수의 대표 제조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 고용은 올해도 뒷걸음침 전망이다.

광양은 경북 포항, 충남 당진, 경남 창원에 이어 전체 철강 업종 종사자(1만6000명)의 4.4% 비중을 보였다.

철강 일자리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진은 “중국발 공급과잉이 지속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해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0%대 증가율에 머물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일자리는 올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지난해 하반기 석유·화학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8만6000명으로, 여수에 2.3%(1만1200명) 가 일하고 있다.

연구진은 석유·화학 업종과 관련,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자급률이 오르면서 세계 공급 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며 “2021년부터 한국의 최대 석유화학 수입 대상국인 중국산 위주의 범용 제품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일자리 증가율은 2023년 하반기(3.1%)부터 2024년 상반기 1.7%→2024년 하반기 1.4%→2025년 상반기 1.1%→2025년 하반기 0.6% 등으로 내려오다가 올해 상반기 0.5%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내수는 원만한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보호무역이 강화하고 주요국과 경쟁이 심화할 경우 수출 증가 폭이 제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와 직종별 사

업체 노동력조사를 기반으로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일자리 증감을 전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바일로도 로또 구매해요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로또복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로또를 구매하는 모습.

/연합뉴스



## 광주일보 기획보도, 한국기자상 수상

###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연속 보도

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일보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광역의원의 715개 공약을 전수 조사한 뒤 맞춤형 공약 271개의 이행 여부를 추적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 위원회(위원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57회(2025년) 한국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보도 등 5개 부문 7편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일보와 경기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4개 언론사가 공동기획 취재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은 지역 기획 보도로 광주·전남도당 위원장들의 방침을 이끌어냈다.

한국기자상은 한국기자협회가 1967년부터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그 해 보도된 기사 중 가장 뛰어난 기사를 가려내 주는 상이다.

앞서 광주일보의 연속 보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의 좋은 보도상’과 한국기자협회 424회(2025년 12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하차는 지하철 3번 출구에서…광주송정역 교통체증 풀리나

승강장 교통체계 개편 시범 운영  
2번 출구에 호출택시 승차대 신설

‘교통지옥’으로 꼽히는 광주송정역 일대 교통 체계가 수술대에 오른다.

광주시는 송정역 승강장 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그동안 한데 뒤섞여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승차와 하차 차량의 동선을 절저하 분리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하차 구역’의 이동이다. 기존에는 지하철 5번 출구 인근에 승객을 내려주는 차량과 태우려는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병목 현상이 심각했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차 전용 구역을 전방 100m 지점인 3번 출구 앞으로 변경해 공간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시는 카카오톡, 우버, 티머니 등 모바일 택시 플랫폼 사와 협의를 마쳤다.

택시 기사나 이용객이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광주송정역’으로 설정하면, 자동으로 새로 바뀐 하차 구역(3번 출구)으로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시는 택시부터 우선 적용한 뒤 향후 일반 차가용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이 급증한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호출 택시를 위한 ‘전용 승차 공간’도 새로 생겼다. 시는 KTX 역사 건너편인 지하철 2번 출구 앞에 ‘호출 택시 승차대’를 신설했다.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지정된 승차대 위치에서

만호출 및 탑승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조정해, 줄지어 서 있는 일반 대기 택시와의 혼선을 막고 승객들이 택시를 찾기 위해 차도를 오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원천 차단했다.

자가용을 이용해 지인을 마중 나온 시민들은 이용 수칙 변경에 주의해야 한다. 역사 앞 도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대신 ‘30분 무료 회차’가 가능한 광주송정역 주차별 당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도착한 승객을 태워서 나가는 방식이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개편은 택시 업계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현장 실사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라며 “시범 운영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편한 교통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영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개편은 택시 업계와 수차례 머리를 맞대고 현장 실사를 거쳐 마련한 대책”이라며 “시범 운영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편한 교통체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처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시 자주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염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이 일시 정지된 기간이라도 쿠팡 관련 분쟁의 조정을 허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나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쿠팡 집단 분쟁조정 2건 개시 의결

집단·개인 2542명 참여…처분절차 종료 때까지 조정 일시정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을 상대로 신청한 집단 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상대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은 작년 12월 11일 고모씨 등 50명이 먼저 냈고, 같은 달 23일 김모씨 등 1626명이 추가 제출해 모두 1676명이

참여했다. 이 밖에 조모씨 등 866명이 일반 분쟁조정을 신청해 쿠팡은 상대로 한 개인·집단 분쟁 신청자는 2542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분쟁조정위 운영세칙에 따라 개인정보위의

처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단 분쟁조정 개시 공고와 당시 자주가 참가 모집도 개인정보위의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된다.

강영수 분쟁조정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염중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이 일시 정지된 기간이라도 쿠팡 관련 분쟁의 조정을 허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www.kopico.go.kr)나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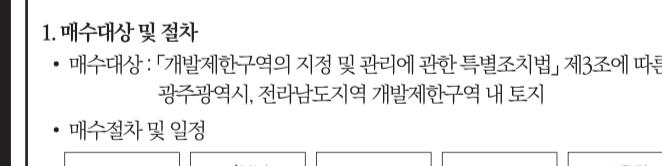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안내

이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방지是为了 위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수합니다.

#### 1. 매수대상 및 절차

- 매수대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매수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현장조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계량접수 순위에 따라 매수 결정되며, 매수 부적합 등 토지는 매수대상에 제외 될 수 있음
- \* 소규모 토지, 도시 계획시설 결정 토지, 도로 하천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
- 매수자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02.10.(화) ~ 2026.03.11.(수)
- 26.3.11.(수)까지 접수분에 한해 ‘26년도 매수대상으로 신청’
- 이후 접수분은 ‘27년 매수절차에 따라 매수심의 예정’

#### 4. 제출서류

-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토지 등의 매수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본, 신분증
- \* 신청자는 이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디온로드 또는 이산국토청 보상과에서 배부
- \* 대리인 접수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본), 위임장,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5. 제출방법

- 우편접수 : 신청접수마감일(26.3.11)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건 기준
- \*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3.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 : 매수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토관리청에 문의